더 좋은 건축·산업자재
KCC
www.kccworld.co.kr

문화일보

평균 17% 저렴한 자동차보험

석간 www.munhwa.com 대표전화 (02)3701-5114 THE MUNHWA ILBO 제 4553 호 3판 2006년 10월 2일 월요일

연중기획 Global Korea 21C 경제大戰 현장을 가다

아프리카에도 'Made in Korea' 열풍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세디의 줄루족 청년이 지난달 25일 삼성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하고 있다.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마을의 원주민들에게도 삼성 휴대전화는 최고 인기상품이다. 레세디(남아프리카공화국)=김낙중기자 sanjoong@

줄루族 "코리아 휴대전화 최고"

삼성 스와힐리어 입력폰 '문자혁명' 주도
LG는 비디오 등 가전시장서 점유율 1위

日과의 경쟁 끝나… 우리기업끼리 '선두 다툼'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력은 대단했다. 고려상인들이 '코리아(고려)'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렸다면, 21세기 한국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는 제2의 개국공신은 글로벌 경제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다.

▶관련기사 4·5면

지난달 25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세디에 있는 줄루족 민속마을을 찾았다. 남아공 경제중심도시 요하네스버그에서 자동차로 40여분을 달려가야 하는 이곳은 현생 인류의 발상지라 해서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으로, 남아공 주요 5개 부족의 거주지가 형성돼 있다. 레세디는 현지 부족어인 소토 언어로 '빛이 있는 땅'을 뜻한다. 줄루족과 코사족, 은데벨레족, 바소토족, 페디족이 일종의 민속마을을 만들어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 하루 2차례 관광객들에게 거주지 일부를 개방, 관람을 시켜주고 구슬공예품이나 토속인형 따위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원주민 마을의 청년들에게도 휴대전화는 가장 갖고 싶은 물품 1순위였다. 줄루족 청년 콜린리(20)는 취재진이 한국에서 왔다고 하자 "삼성 휴대전화가 몹시 비싸긴 하지만 모두들 갖고 싶어 한다"며 큰 관심을 보였다.

줄루족은 아프리카 남부 원주민들 중에서도 '전사의 부족'으로 유명하다. 19세기 초반 '검은 나폴레옹'이라 불렸던 대족장 샤카 줄루가 전사들을 이끌고 영국군을 물리친 뒤 줄루 제국을 만들면서 서방에도 널리 알려졌다. 현대의 남아공에서는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을 배출한 코사족에 밀려 제2의 정치세력이 됐지만 여전히 전사의 기질을 자랑하고 있다.

레세디(남아프리카공화국)·나이로비(케냐)=구정은기자 koje@munhwa.com

4면에 계속

남북 군사실무회담 재개 '철도' 등 논의

통일각서 열려… 北 제안으로 5개월만에
北, 南민간단체 對北전단 등 중단 요구

북한은 2일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접촉에서 남측이 북측체제를 비방하는 선전활동을 하고 있다고 항의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박기용 단장 대리(상좌·중령과 대령 중간 계급)는 이날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접촉에서 남측이 북측을 향해 불온선전 활동을 하고 있고 금강산 관광객 가운데 일부도 이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고 한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북측은 2004년 6월4일 제2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선전활동을 중단키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측 민간단체가 올 들어 대북 비방 전단을 뿌린 점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금강산 방문 도중 북한측 초병과 불필요한 접촉을 하고 일부 금강산 관광버스 내에서 북측에 반입하지 않기로 합의한 일부 품목(서적)이 발견된 사례 등을 지적하며 선전활동 중단 합의사항을 위반했다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남측은 "일부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어 이를 중지토록 조치했다"면서 "북측도 철도·도로 군사보장합의서, 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 등 군사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적극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16~18일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4차 장성급 군사회담 이후 5개월 만에 처음 이뤄진 이번 군사 접촉에는 우리 측에서는 문성묵 국방부 북한정책팀장이, 북측에서는 박기용 군사실무회담 북측단장(수석대표) 대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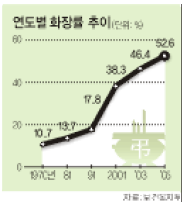
정종신기자 csjung@

역대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과 주요 합의사항

일시	장소	주요 합의사항
2004년 5월26일	금강산	-6월3일 2차 회담 개최
2004년 6월3~4일	설악산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 시행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2006년 3월2~3일	판문점	-합의 도출 및 차기회담 일정 못 잡고 결렬 -북,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대체할 경계선 필요 주장
2006년 5월16~18일	판문점	-경의선 동해선 철도 임시운행을 위한 군사보장 합의서 체택 무산 -북, NLL 경계선 설정문제 논의 주장

화장(52%)이 매장 앞섰다

지난해 처음…부산 74% 전국 최고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의 화장률이 매장률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들의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지난해 전국 화장률은 52.6%로, 2004년의 49.2%에 비해 3.4%포인트 증가했다.

화장률은 부산이 74.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인천(69.0%), 서울(64.9%) 울산(61.6%), 경기(60.2%), 대구(51.5%)등이 차례로 50%를 넘어섰다. 반면에 농촌지역인 전남은 27.2%로 화장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충북(29.7%), 충남(31.6%) 등이 뒤이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지역의 경우 묘지를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데다 노령 인구가 많아 매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화장률은 1970년 10.7%에 불과했으나 2001년에는 38.3%, 2002년 42.5%, 2003년 46.4%, 2004년 49.2%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2010년이 되면 화장률이 70%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화장시설 신·증설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당정협의를 갖고 지역마다 화장 수요를 자체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화장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한 지역 주민이 다른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할 때 화장요금을 더 내도록 해 그 수익금을 복지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민·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화장시설 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화장시설로 인해 지역간 갈등이 야기될 경우 복지부가 직접 중재·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내년에 45억원의 예산 확충을 통한 화장시설 국고지원 확대 등을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운영중인 화장시설은 46곳에 불과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부족, 신·증축이 시급하다"며 "자치단체에 화장시설 확충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해당 지역주민은 화장요금을 적게 받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순환기자 soon@

내일 개천절…전국서 '한민족 4338년' 행사

제4338주년 개천절 기념식이 3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정부는 3부 요인을 비롯해 단군 관련단체 인사, 주한외교사절, 시민대표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번 개천절 기념식 단상배면 장식은 개국 발상지인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꾸며 민족국가의 자긍심을 높이기로 했다.

이날 기념식이 진행되는 동안 행사 진행음악은 전통국악과 양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퓨전국악이 선보인다.

이와 함께 식후에는 타악 공연단인 신명풍물예술단의 '7000만 겨레가 하나로, 미래로' 공연에 이어 전통 퓨전국악단인 소리아의 '한민족의 울림을 세계로'라는 제목의 퓨전국악공연 등이 20분간 펼쳐진다.

이 밖에도 이날 서울 종로구 사직동 단군성전에서는 사단법인 현정회 주관으로 '개천절 대제전'이 열리고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에서는 천제봉행 후 칠선녀 성무 및 성화 채화 행사가 열리는 등 전국적으로 개천절과 관련된 향토 문화 예술 행사가 열린다.

또 '개천절 문화대축제'가 지난 1일부터 시작해 3일까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의 주요도시에서 ㈔국학원(원장 이택휘), 국학운동시민연합(회장 이성민), 세계국학원청년단(단장 김순중) 등 90개 민족 단체의 주최로 열린다.

김종락·한강우기자 jrkim@

개천절 특집 16P 별쇄
내일 개천절 신문쉽니다

- 새벽 백두산 화보 35
- 21세기 개천절의 의미 37
- 도전받는 민족의 성지 38
- 국립중앙박물관 즐기기 41

- 세계의 건국 신화 42
- '윤회의 땅' 티베트 43
- IT 한국의 미래 44 45
- 차세대 인물 30인 46 47

- '유엔총장' 내일 윤곽 3
- 박근혜 대표 인터뷰 7
- 오늘 노인의 날 10 27
- 브라질 '룰라' 아슬아슬 28

우즈 PGA 6연속 우승 '포효'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연승기록을 '6'으로 늘렸다. 우즈는 2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근교의 허퍼드셔 그로브GC에서 열린 월드골프챔피언십(WGC)시리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챔피언십(총상금 750만달러)에서 2위에 8타차로 승리, PGA투어 6개 대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시상식에서 우즈가 우승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관련기사 19면 허퍼드셔=AP·연합뉴스

감사합니다.
앞선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JOBKOREA